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Focus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s Mediators

박병금**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Park, Byungkum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Digit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eco-system factors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nd whether self-esteem and depression mediate in the process to provide theoretical basi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for problems of adolescents who have suicidal ideation. 2,088 high school students were asked to complete self-administering questionnaires on eco-system factors and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ies, t-test, ANOVA with Scheffe ad-hoc test, correlation analysis using SPSS 12.0 program and AMOS 5.0 program.

Study results were ; First,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ir gender, socio-economic financial status, family structure, and the type of school they attended. Second, self-esteem and depression were proved to hav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Child abuse victimization, subjective school achievement and influence of media coverage of celebrity suicide were most important variables which influenced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These results reinforc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with eco-system perspective. Moreover, prevention programs for adolescents' suicide require differentiated strategies and tactics according to the target group characteristics.

Key Words :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eco-system factors, mediating effects, self-esteem, depression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살은 자기파괴적 행위이며,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부패한 죽음이다. 방어기제가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는 성인에 비해 더욱 심리적 영향이 클 뿐 아니라 모방 자살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인생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 특별히 더 자살과 같은 위험 행동을 쉽게, 그리고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의 자살은 전체 청소년(10-24세)의 사망원인 중 22.3%를 차지하여 교통사고(24.0%) 사망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이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이 아닌 청소년 스스로 생명을 중단하는 행위를 한 것이어서 최근 청소년 정신건강 분야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통계청, 2006) 자살은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의 문제이기도 하다. 청소년의 자살은 미국의 경우에도 청소년(10-24세)의 사인 중 3번째(11.7%)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공적 건강문제로 지적되고 있다(Anderson & Smith, 2003). 또한 이러한 통계들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결과일 뿐이며,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까지 염두에 둔다면 더 이상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이며 사회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

* 이 논문은 본인의 박사학위논문을 재구성하였음.

** Corresponding author: Park, Byungkum

Tel: 02) 2128-3048, Fax: 02) 2128-3006

E-mail: bkpark@sdu.ac.kr

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청소년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관심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살과 관련해서는 주로 특정 위험요인들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조사연구들이 있어왔다. 김기환(199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과 부모, 교사 상호간의 자살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가 매우 달라서 청소년 자살에 대한 문제를 청소년 당사자에 비해 성인들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결과, 자살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부족과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결여로 나타나고 있다(김기환·전명희, 2000).

청소년의 자살은 자살행동(suicide behavior) 그 자체만이 아니라 자살시도(suicide attempt), 자살의도(suicidal intent), 그리고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을 포함하는 일련의 자살행동으로 이해되고 있다(Ladame & Jeanneret, 1982; Reynolds, 1988). 그러므로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살행동을 자살생각에서 자살 계획, 그리고 자살의 시도에 이어 죽음에 이르는 자살로 연결되는 하나의 연속체로 가정하여, 자살생각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 선행연구 결과(Brent, 1989; Pfeffer et al., 1991; Pfeffer et al., 1988; Reynolds, 1988; Smith & Crawford, 1986; Calson & Cantwell, 1982; Bonner & Rich, 1987; Simons & Murphy, 1985; 민병근 등, 1986)에서도 자살생각율이 높은 집단에서 자살시도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살생각이 자살 연속체의 초기단계이며, 미래 자살행동의 일차적 지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자살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정신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청소년은 자신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해석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반응하므로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바라볼 때는 상황적·환경적 맥락의 이해가 중요하다. 이는 청소년이 자신의 가족과 지역사회 등의 환경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 기능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관점이 바로 생태체계적 관점이다. 이것은 인간과 환경을 특정한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 내에서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바라보도록 해준다. 인간의 욕구와 문제는 인간 혹은 환경 어느 한 쪽의 산물이 아니라 상호교환의 산물로서, 단지 심리적인 과정이나 외부환경에서만 기인한다고 보는 대신 '환경 속의 개인' 맥락에 초점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Germain & Gitterman, 1987). 그리하여 생태체계적 관점은 개인적, 개인상호간의,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어떻게 청소년들의 자살생각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Belsky, 1980; Ayyash-Abdo, 2002; Perkins & Hartless, 2002; Evans, Hawton, Rodham, 2004).

그러나 이제까지의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국내의 많은

연구들은 자살생각과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단편적인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윤성림, 1990)이나 우울증과 충동성(박광배 등, 1991), 인지적 몰락(신민섭, 1992, 이희철, 1995), 소외감(이은숙, 2002) 등의 청소년의 개인내적 요인에 한정되어 있다. 심리사회적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들도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도, 사회적지지 등의 변인들이 대부분이며(박광배·신민섭, 1991; 김향초, 1993; 홍나미, 1998; 홍진아, 2004), 대학입시목표(박광배·신민섭, 1990)와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 수준의 관련 변인들을 간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변인들을 밝히는 데만 한정하고 있어 청소년 자신이나 가족 또는 학교, 사회문화적 차원의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관련변인의 탐색연구는 부족하다.

한편, 많은 선행연구결과들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임을 제시하고 있다. 손상된 자아존중감은 자살현상과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Evans et al., 2004)을 가진다.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증이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Beck, 1975), 또한 개인의 취약성이 증가할수록 우울해진다(McGee & Williams, 2000). 또한 Reynolds (1988)는 자살생각 척도(SIQ)의 주요 하위요인인 청소년의 우울, 무망감은 자살생각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논의와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자살생각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생태체계요인들과의 구조적관계를 설정하여 전체모형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생태체계적 수준을 가족, 학교, 친구, 사회의 영향을 포함하는 가족환경체계, 학교환경체계, 친구환경체계, 대중매체환경체계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체계적 시각에서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 특성의 가장 중심적인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의 경로를 밝힘으로써 청소년 자살의 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구축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차이가 있는가?
2. 생태체계요인들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상

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생태체계요인의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논의

1. 청소년의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청소년들에게 비교적 일반적인 현상이다. 6개월 이내에는 전체 청소년의 약 24%(Zubrick et al., 1995)가, 그리고 21세까지 적어도 약 29%(Fergusson, Woodward, & Horwood, 2000)가 자살생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영주와 이숙현(2000)의 연구에서는 '종종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문항에 48.5%가 동의하였고, '자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에 응답자의 35%가 동의하였다. 정영순(2001)의 연구에서도 '한 번 이상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95.3%로 나타났으며, 그 중 10.3%는 매달 한 번 이상, 0.9%는 거의 매일 자살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연구에서 '최근 1년간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17-19%이었으며, '자살계획을 세웠었다'는 청소년이 11-14%, '자살시도를 해 본 적이 있다'에 응답한 청소년은 5-8%로 나타났다(MMWR, 2004).

이와 같이 자살생각은 비교적 일반적인 현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현상이지만, 자살경향성은 임상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사람들은 자살생각을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으며 나타내지 않으므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살생각을 감지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자살을 예방하는 첫 단계일 것이다.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후의 자살시도의 중요한 한 가지 예측 지표가 될 수 있다(Brent et al., 1999; Shaffer et al., 1996)는 것이다.

청소년 자살의 예방은 자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소년들의 자살시도에 대한 접근과 함께 특정한 위험의 구체화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이다(Shaffer, 1996). 청소년들의 자기 보고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보고와 비교하여 볼 때, 자살생각과 행동 그리고 우울과 같은 자살 위험에 대해 더 높은 예견의 가능성을 가진다(Pfeffer, 2001). 그러므로 청소년들에 대한 자살생각의 직접적인 사정은 자살위험을 진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생태체계요인

인간은 사회체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므로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거나 혹은 사회환경의 영향만을 분리해서 접근하기보다 양자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Belsky(1980)와 Ayyash-Abdo(2002)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생태체계적 접근을 위해 우울, 무망감, 약물이나 알콜남용 등을 포함하는 발생학적 체계(ontogenic system) 또는 개인 지향적 체계, 친밀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하여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주는 미시체계, 청소년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인 외체계,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거시체계는 문화적·종교적 신념과 가치이며, 민족이나 문화적 차이를 말하며, 이러한 네 가지 체계와 관련된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설명하고 있다. Perkins와 Hartless(2002)는 개인체계, 가족체계, 가족외체계(학교, 이웃, 또래집단), 그리고 외체계(문화적 가치, 미디어, 공공정책)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청소년 자살의 생태학적 위험요소들을 검토하였다. Evans 등(2004)은 청소년의 자살현상과 관련된 체계요인을 정신·신체적 건강과 복지, 개인적 특성과 경험, 가족 특성, 교육적·사회적 특성의 네 수준으로 구분하여 관련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청소년과 가정, 학교, 이웃, 사회문화 환경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의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난 복합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들을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사회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러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맥락 속에서 청소년을 바라보아 자살생각의 원인을 청소년 자신과 가족, 학교, 친구, 그리고 사회문화의 다차원 내에서 복합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이러한 다양한 체계들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해결의 열쇠 또한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요인들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그의 환경관련 요인들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루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재학 청소년의 생활과 상황을 고려하여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개인체계요인들은 미시체계와 외 체계에 반응을 형성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둔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련된 개인내적체계 수준의 가장 뚜렷한 요인들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이다. 개인체계 요인들은 청소년의 환경체계와 상호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높은 위험성에 놓이도록 한다. 또한 생태체계적 접근에 기반한 이해라는 것은

개인과 가족을 더 큰 사회적 단위 안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체계는 미시체계 내에서의 가족, 학교, 그리고 친구이다(Ayyash-Abdo, 2002). 대중매체와 같은 외체계는 청소년에게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청소년의 환경체계는 가족, 학교, 친구, 대중매체를 포함한다.

1) 가족환경체계와 청소년의 자살생각

가정 내에서 부모폭력이 발생할 때 자녀가 이를 목격하는 내용과 정도는 광범위하다(Wyndham, 1998). 자녀는 부모가 폭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폭력에 직접 관련되거나 폭력을 직접 목격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방에서 단지 소리만을 듣고 있을 수도 있다. 혹은 부모들이 입은 상처나 어질러진 집안을 보며 폭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게 된다. 부모의 폭력에 노출된 자녀는 학대를 경험하는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부부폭력의 문제는 부부 당사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게 오히려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eled, 1997; Osofsky, 1998; Jaffe et al., 1996; 김재엽, 2001; 장덕희, 2004).

학대경험이 자살생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들이 많다. 신체적 학대와 자살생각이 연관성(Blum et al., 1992; Grossman et al., 1991; Wagman Borowsky et al., 1999)이 있으며, 성적학대와 자살행동과의 관련성(Bensley et al., 1999; Blum et al., 1992; Grossman et al., 1991; Wagman Borowsky et al., 1999)도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Grilo 등(1999)의 정신병원 입원 환자 중 자살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 자기비판, 무망감, 자살위험과 학대경험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대경험이 없는 우울증 청소년보다 학대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더 자살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feffer(1988)도 폭력과 성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이 자살행동의 고위험에 놓여 있음을 주장하였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즉, 아버지의 낮은 교육수준과 가족의 낮은 경제수준에 대한 스트레스나 걱정이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Andrews & Lewinsohn, 1992; Dubow et al., 1989; Roberts et al., 1997; Rubenstein et al., 1989; 이한나, 2006).

2) 학교환경체계와 청소년의 자살생각

낮은 학업성취는 청소년의 자살행동과 관련되어 있다(Dubow et al., 1989; Grossman et al., 1991; Kandel et al., 1991; Reinherz et al., 1995; Rubenstein et al., 1989;

Watt & Sharp, 2001; 송동호 등, 1996; 이은숙, 2002). 박광배와 신민섭(1990)의 고등학생의 대학입시목표와 자살생각의 연구에서 학년에 관계없이 대학입시목표라는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orowsky 등(2001)은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자살시도를 적게 하며, 높은 학업성적이 자살시도의 보호적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래로부터의 학교폭력의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고통은 물론 심리적 외상을 남기게 된다. Baldry와 Winkel(2003)은 직접적인 폭력의 희생자는 학교에서 또래로부터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폭력의 목표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자살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Rigby와 Slee(200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학교폭력 피해가 연관성이 있었으며, 하연희(2001)의 연구에서도 자살하고 싶은 상황의 가장 높은 순위가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과 학교폭력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래기능은 직·간접적으로 자살과 관련되어 있으며, 문제성있는 또래 관계는 자살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 중요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Ayyash- Abdo, 2002).

3) 친구환경체계와 청소년의 자살생각

친구의 죽음은 우울증 발생의 증가와 관련되며 자살생각 위험을 증가시킨다(Brent et al., 1993). 친구가 자살을 한 청소년은 자살생각이나 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다(Blum et al., 1992; Buddeberg et al., 1996; Grossman et al., 1991; Kinkel et al., 1989; Manson et al., 1989; Rubenstein et al., 1989). 이는 자살의 전염성과도 관련 있는 것이며, 특히 청소년 시기에 또래의 영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4) 대중매체환경체계와 청소년의 자살생각

최근에는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을 통해 정보보급이나 새로운 지식의 보편적인 제공 등의 긍정적 영향과 함께 인터넷의 악용과 부적절한 정보의 범람이라는 부정적 영향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일차적인 파급효과를 가졌고, 특히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들과 자살을 의논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자살을 돕기까지 하는 '자살사이트'가 등장하였다. 자살사이트는 그 생성시간에 비해 그 파급효과는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2002)의 초·중·고생 2,8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10명 중 3명이 자살사이트 접속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접속자 중 34%가 실제 자살을 계획했음이 나타났다고

했다(주지홍, 2003 재인용). 하연희(2001)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56.3%가 자살사이트 영향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YMCA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광주지구 중고교생 5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서는 163명(28.8%)이 인터넷상의 자살·엽기시리즈에 관련된 각종 동영상 프로그램 내용을 실행해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함으로써(동아일보, 2001.3.21. 전자신문), 인터넷의 자살·엽기사이트에서 얻은 가상체험을 실제 생활에서 실행하려고 하는 이상적인 행동으로 청소년들에게 나타났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자살의 위험 정도를 사정하는 독특한 한 요인은 방아쇠 효과(ripple effect) 현상이다(Pfeffer, 1989). Shaffer(1988)는 대중매체에서 유명인의 자살을 보도하거나 청소년의 자살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 방영 후 1-2주 동안에 청소년의 자살이 증가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모방자살(copycat suicide)이라고 하며, 자살에 대한 노출은 그러한 행동을 모방하거나 흉내내는 청소년들에게는 위험요소가 되는 것이다. 즉, 자살보도문에서의 언어적 표현이 자살의 전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베르테르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문기사(Jonas, 1992; Stack, 1991; Wasserman, 1984), TV 보도(Bollen & Phillips, 1982; Phillips & Carstensen, 1986; Stack, 1993), 그리고 소설들(Gould & Shaffer, 1986; Hawton et al., 1999)을 포함하는 대중매체는 청소년의 자살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특히 유명인의 자살 보도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자살로 유사한 경향성을 가지게 되어 청소년을 고무시킨다(Berman, 1988; Stack, 1987; Wasserman, 1984).

3. 생태체계요인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1) 가족환경체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들 중에서도 가정은 청소년과 가장 근접한 매우 중요한 환경영역이다. 가정은 개인의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적 환경이며 인간의 성장 발달과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은 신체정서적 발달과정에 놓여 있으므로 가정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청소년 자녀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로부터의 부정적 평가나 관계의 경험이 개인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의 갈등과

불화로 인해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청소년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므로 청소년 자녀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Cummings 등(1985)은 부부갈등의 빈도가 많을수록 자녀는 스트레스와 분노, 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더욱 심하게 겪게 된다고 하였으며, 김태건(2006)은 부부폭력이 청소년 자녀에게 자아존중감 및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폭력은 자녀로 하여금 소극적이고 과잉 통제된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는 종종 우울 정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조미숙, 1999; 신혜섭, 2000; 장희숙, 2002). 가정 폭력을 겪으면서 청소년들은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고 자신들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만들고 나아가 우울증상을 보이게 된다(Lynch & Cicchetti, 1998). Sternberg 등(1993)은 부모 간의 폭력을 보거나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우울증이 훨씬 높다는 것을 밝혀내었으며, 김민강(2002)은 학대경험이 부정적인 자아개념 뿐만 아니라 위축, 우울, 불안, 공격성 등의 심리행동상의 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 가정에서는 부모가 특히 생계유지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므로 부모와 자녀의 대화 및 접촉 시간이 감소되고 지도감독이 소홀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부모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자녀의 정신건강의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다(Amato & Keith, 1991).

2) 학교환경체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학교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중요한 환경이며,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환경요인이다.

우리나라는 대학입시와 연결되는 경쟁적인 관계와 학업성취의 부담이 청소년의 생활전반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리(1995)와 박금순(1995)은 우리나라의 경쟁적인 대학 입시와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우울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조진희(1998)는 시험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신체적·심리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또래로부터의 수용과 인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Flannery 등(2004)은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폭력 노출에 대한 연구에서 3-12학년의 56%-87%가 지난 1년간 학교폭력을 경험 또는

목격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분노, 우울, 고립감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친구환경체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또래관계는 청소년기 행동의 기준과 모범이 되고, 사회적 압력으로도 작용하면서 인간의 사회 및 성격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 각자가 자기를 스스로 수용함은 물론 타인으로부터의 수용과 인정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윤진, 1993). 청소년의 자기 평가 기준의 많은 부분은 친구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친구의 존재와 역할은 청소년 시기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개인에게 정서장애를 유발시키는 생활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주요한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며, 정숙경(1991)은 청소년의 성격, 죽음을 본 경험, 죽음에 대한 생각 유무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Grossman 등(1991)은 친구의 상실 경험이 청소년의 부정적인 자기평가와 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Brent 등(1993)은 친구의 죽음은 우울증 발생의 증가와 관련되며 이를 통해 자살 생각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4) 대중매체환경체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이 일반적이므로 인터넷을 통한 영향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보편적인 제공 등의 긍정적 영향과 함께 인터넷의 악용과 부적절한 정보의 범람이라는 부정적 영향이 공존하게 되었으며,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들과 자살을 의논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자살을 돕기까지 하는 '자살사이트'가 등장하였다. 청소년개발원의 연구보고(2003)에 의하면, 이러한 자살사이트가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 세계의 영향이 청소년기라는 발달과정상의 민감한 시기에 생각보다 훨씬 큰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관심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대중매체의 보급의 증가와 함께 그 대중매체는 대중스타에 대한 기사나 사생활, 이들이 출현하는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방영하므로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이 우상화 대상을 접할 기회가 더욱 많아졌다(김훈태, 2003). 최우신(1999)은 연예인 우상화와 심리적 특성의 연구에서 연예인에 대한 우상화가 높을수록 내향성과 신경증적 성향이 높고, 미래관이 불확실함을 보여준다고 하였고, Berman(1988)과 Phillips와 Carstensen(1986)은 유명인의 자살을 접한 청소년은 심리적 충격과 함께 높은 수준

의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며 동일시 욕구를 느끼게 되고 자신의 자살로 여겨지게 된다고 하였다. 장문태(2002)는 대중매체에 보도된 자살사건은 개인적인 죽음이 공식적인 영역 속에서 드러남으로서 사회적인 죽음으로서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회화의 과정에서 현실과 다른 낯설고 새로운 구성체로서의 매체 속의 현실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살보도는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에 대해 새로이 구성된 현실감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엔 실제 현실 속의 자살마저 낯설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예인 등의 유명인의 자살이 청소년에게 심리정서적 취약성을 증가시켜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 효과

많은 선행연구결과들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손상된 자아존중감은 자살현상과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Evans et al., 2004)을 가진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며, 긍정적인 자기평가이다. 자아존중감이 높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면 극단적인 행동을 감행할 위험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변화가 많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시기이며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이 많은데, 이에 비해 경험적으로는 아직 성숙의 과정에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많은 심리적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우울에 이르게 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증이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Beck, 1975). 개인의 취약성이 증가할수록 우울해지며(McGee & Williams, 2000), 자살생각과 행동에 큰 변화를 주며, 다른 모든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도 영향을 주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Kienhorst et al., 1990; Martin, 1996; Martin et al., 1995; Mazza, 2000; Pilowsky et al., 1999; Rubenstein et al., 1989; Stewart et al., 1999; Swanson et al., 1992; Yuen et al., 1996). 이들 연구결과들은 우울과 자살현상은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분노와 자아존중감과 같은 정신건강 관련 요인들은 우울증을 동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있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자살생각과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최근의 국내연

구들에서도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전영주, 2001; 이은숙, 2002; 홍영수·전선영, 2005).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고등학교 재학 청소년을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 광역시, 중소도시, 그리고 군지역의 청소년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표집하였다. 조사대상자가 특정지역을 불균형하게 대표하는 것을 방지하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의 광역시, 2개의 중소도시, 6개의 군지역으로 구분한 후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였으며, 고등학생이 본 조사의 대상이었다. 조사는 학교 청소년이라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인문고와 실업고, 학년의 차이가 클 것으로 사료되어 학교계열과 학년에 따라 비슷한 수의 조사대상자가 분포되도록 하였다. 3학년생은 대학입시준비라는 특수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으므로 조사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았다.

예비조사는 2005년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하여 총 172부를 분석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는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사과정은 연구자가 직접 각 학교를 접촉하여 담임교사의 협조를 구하고 연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거나, 일부 학교는 우편을 통해 담임교사에게 전달하여 총 2,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도록 하였다. 회수결과, 분석에 부적합한 응답을 제외한 총 2,08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도구

1) 자살생각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도구는 Reynolds(1988)의 자살생각척도(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로 현재의 자살생각의 수준을 측정하는 30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척도이며, 국내에서는 홍영수(2004)가 사용한 바 있다. 또한 SIQ는 자살생각 뿐만 아니라 의도와 계획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생각한 적이 없다(0점)'에서 '거의 매일 생각한다(6점)'까지 7점 리커트 척

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어 자살생각의 위계성에 대한 빈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조사 결과, 유사한 내용의 문항이 반복되고 7점 척도로 인한 응답이 복잡하여 불성실한 응답이나 무응답이 다수 발견되므로 요인분석을 통해 아동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로 이루어진 전문가 6인의 논의를 거쳐 14문항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6이었다.

2) 자아존중감과 우울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 Fisher & Corcoran, 1994 재인용)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로, 자기존중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점수이다. 이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8이었다.

우울은 Beck(1979)이 고안한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이민규 등(1995)이 표준화 연구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것(K-BDI)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총점은 최저 0점에서 최고 63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울의 평가는 선행연구들에서 각 요인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21개의 항목들이 모두 슬픔, 실패감, 죄책감, 불면증, 자살, 피로감 등과 같은 자기 상이한 영역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3) 가족환경체계요인

부모폭력 목격경험은 Straus(1995)의 CTS(The Conflict Tactics Scale)를 참고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경미한 신체적 폭력(1문항)과 심각한 신체적 폭력(3문항)의 두 개의 영역으로 4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없다(0점)'에서 '주 1회 이상(4점)'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양친가정의 청소년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학대경험은 Straus(1998)의 CTSPC(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를 참고로 하여 정서학대(2문항), 신체학대(2문항), 방임(4문항) 등으로 이루어진 8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전혀없다(0점)'에서 '주 1회 이상(4점)'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5이었다.

가족의 경제수준은 상류층, 중상류층, 중류층, 중하류

층, 하류층으로 구분하여 청소년 자신이 판단하고 있는 계층을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상류층(5점)에서 하류층(1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학교환경체계요인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과목에 대하여 자신이 지각한 학업성취도를 '매우잘한다'(5점)에서 '매우 못한다'(1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직접 평가하도록 하여 합산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68이었다.

학교폭력경험은 따돌림, 또래들로부터 폭행, 또는 금품갈취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1개 문항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사용하였다.

5) 친구환경체계요인

친구의 자살경험 경험은 친한 친구 중에 자살 또는 자살 시도를 한 친구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1개 문항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사용하였다.

6) 대중매체환경체계요인

인터넷 자살사이트 방문 경험여부를 묻는 1개 문항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구성하였으며, 유명인의 자살의 영향에 관한 문항은 선행연구를 참고로하여(Berman, 1988; Phillips & Carstensen, 1986; Stack, 1987; Wasserman, 1984) 연예인 등의 유명인의 자살보도를 보면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는지의 여부를 묻는 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집단간 개별비교는 Scheffe의 사후검증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생태체계요인과 매개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용하였다. 경로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모형합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χ^2 검증과 합치도 지수로는 GFI, AGFI, NFI, CFI, 그리고 RMSEA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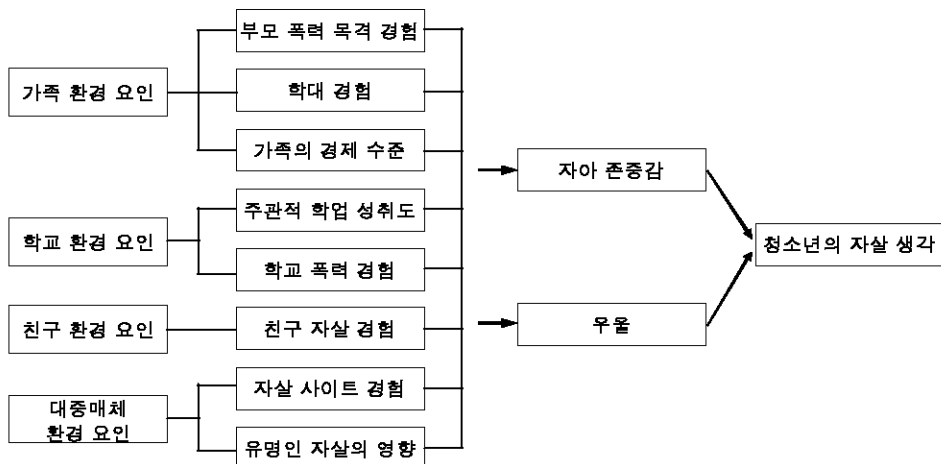
4.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생태체계요인의 영향:

제안된 연구 모형(그림 1)

IV. 연구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는 남학생이 1,003명(48%)이며, 여학생이 1,085명(52%)이다. 인문계고등학생이 1,109명(53.1%), 실업계 고등학생이 979명(46.9%)이며, 고등학교 1학년생이 1,034명(49.5%), 고등학교 2학년생이 1,054명(50.5%)이다. 거주지역은 광역시가 635명(30.4%), 중소도시가 893명



[그림 1]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생태체계요인의 영향: 제안된 연구 모형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명(%) / M(SD)	변인	구분	명(%)
성	남자	1003 (48.0)	지역	광역시	635 (30.4)
	여자	1085 (52.0)		중소도시	893 (42.8)
	합계	2088(100.0)		군	560 (26.8)
		합계		2088(100.0)	
학교 계열	인문계고	1109 (53.1)	학년	고등학교 1학년	1034 (49.5)
	실업계고	979 (46.9)		고등학교 2학년	1054 (50.5)
	합계	2088(100.0)		합계	2088(100.0)
가족 구조	친부모가정	1676 (80.8)	경제 수준	상류층	18 (0.9)
	재혼가정	48 (2.3)		중상류층	103 (5.0)
	부자가정	111 (5.3)		중류층	1072 (51.9)
	모자가정	139 (6.7)		중하류층	635 (30.7)
	조부모가정	50 (2.4)		하류층	239 (11.6)
	친척과	26 (1.3)		합계	2067(100.0)
	형제 또는 혼자	25 (1.2)			
	합계	2088(100.0)			

(42.8%), 군지역이 560명(26.8%)이다.

가족구조는 양친가정 청소년이 1,724명(83.1%)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 친부모가정이 1,676명(80.8%)으로 대부분이 친부모와 같이 살고 있으며, 그 외 친부 또는 친모와 계부 또는 계모로 이루어진 재혼가정이 48명(2.3%)이었다.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은 부자가정 111명(5.3%), 모자가정이 139명(6.7%)으로, 총 250명(12.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부모와 살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50명(2.4%)이며, 친척과 사는 경우가 26명(1.3%), 형제와 혹은 혼자 사는 청소년도 25명(1.2%)으로 나타나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은 총 101명(4.9%)이었다.

경제수준은 청소년 자신이 생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중류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072명(5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하류층이 635명(30.7%), 하류층이 239명(11.6%), 중상류층이 103명(5.0%), 상류층이 18명(0.9%)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볼 때, 본 조사 대상 청소년의 대부분이 자신의 경제계층이 중류층이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성, 지역, 학교유형, 학년, 가족구조, 경제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 경제수준, 가족구조, 학교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지역, 학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즉,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그리고 실업계고등학생이 인문계고등학생보다 자살생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의 경우 사회계층이 상·중류층인 청소년과 하류층인 청소년의 차이가 있었으며, 하류층의 청소년이 상·중류층 청소년보다 자살생각이 높았다. 그리고 양친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과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과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이 자살생각이 더 높았다. 즉, 부모의 존재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자살생각이 차이가 있으며, 부모가 없는 경우 청소년의 자살생각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

	변인		n	M(SD)/Scheffe	F(t)
	성	구분			
청소년의 자살 생각	성	남	997	0.83(1.10)	-4.00***
		여	1084	1.02(1.06)	
	경제 수준	상류층	121	0.75(1.03)/a	19.84**
		중류층	1071	0.81(1.00)/a	
		하류층	869	1.11(1.17)/b	
	가족 구조	양친가정	1719	0.90(1.16)/a	8.94***
한부모가정		248	1.01(1.12)/a		
소년소녀가정		101	1.35(1.33)/b		
학교 계열	인문계 고등학교	1108	0.87(1.01)	-2.83**	
	실업계 고등학교	973	1.00(1.16)		

p<.01, *p<.001

<표 3> 생태체계요인과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상관관계

	자살 생각	자아 존중감	우울	가족환경체계요인			학교환경 체계 요인		친구환경 체계요인	대중매체 환경체계요인	
				부모폭 력목적	학대 경험	경제 수준	학업 성취	학교폭 력경험+	친구 자살+	자살 사이트+	유명인 자살+
자살생각											
개인	자존	-.39**									
	우울	.57***	-.43***								
가족	부폭	.29***	-.08***	.25***							
	학대	.44***	-.15***	.33***	.46***						
	경제	-.15***	.21***	-.14***	-.02	-.08**					
학교	학업	-.08***	.26***	-.14***	-.01	-.06**	.21***				
	학폭	.17***	-.10***	.13***	.04*	.11***	-.05*	-.03			
친구	친구	.14***	.01*	.07**	.11***	.15***	-.12***	.02	.13***		
대중 매체	자살	.19***	-.05*	.14***	.08***	.14***	-.04	-.03	.07**	.14***	
	유명	.40***	-.19***	.28***	.06*	.18***	-.08**	-.01	.11***	.13***	.24***
평균 (SD)	0.93 (1.08)	2.53 (0.42)	0.59 (0.46)	0.15 (0.43)	0.44 (0.67)	2.53 (0.79)	2.63 (0.70)	0.06 (0.23)	0.12 (1.17)	0.06 (0.23)	0.07 (0.26)

*p<.05, **p<.01, ***p<.001
+dummy 변수(없음 0, 있음 1)

3. 생태체계요인과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상관관계(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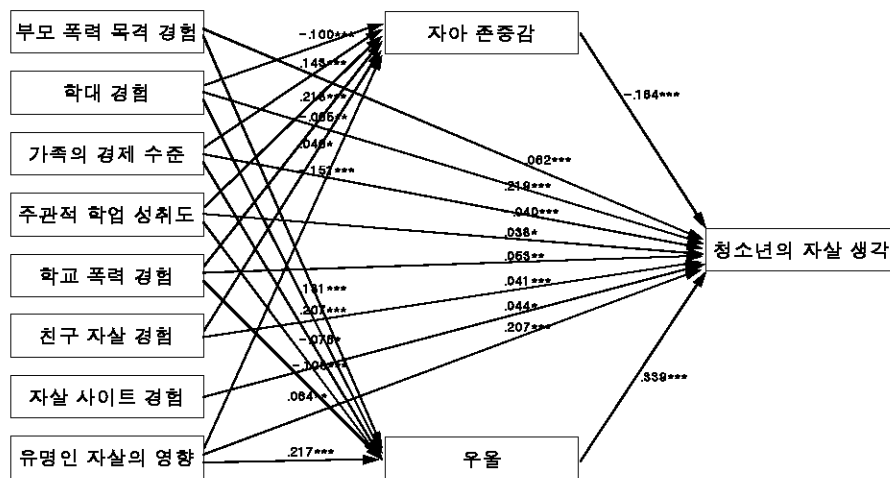
AGFI=0.990, NFI=0.998, CFI=0.999으로 모두 0.9이상이며, RMSEA=0.019로 0.05보다 작으므로 수정모형이 자료와 적합하였다. 표준화계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4. 생태체계요인의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

<표 4>는 생태체계요인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총효과, 직접효과, 그리고 간접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족환경체계의 학대경험과 부모폭력목적경험, 가족의 경제적 수준, 그리고 학교환경체계의 주관적 학업성취도, 학교폭력경험, 친구환경체계의 친구의 자살 경험, 대중매체환경체계의 자살사이트 방문경험과 유명인 자살의 영향 여부의 요인들이 경로모형에서 분석되었다.

[그림 1]의 이론적 연구모형을 기초로 청소년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제안된 모형은 적합도가 낮아 수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그림 2]와 같이 수정된 경로모형을 설정하였고, $\chi^2=6.791$, $p>.05$, $df=4$ 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합치도 지수들은 GFI=0.999,



*p<.05, **p<.01, ***p<.001 / 표준화된 계수임.

[그림 2] 생태체계요인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표 4> 생태체계요인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자아존중감, 우울의 효과분해: 표준화계수

		청소년의 자살생각			자아존중감			우울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생태 체계 요인	부모폭력목격경험	.062	.044	.107	.000	.000	.000	.131	.000	.131
	학대경험	.219	.087	.305	-.100	.000	-.100	.207	.000	.207
	경제수준	-.040	-.049	-.089	.143	.000	.143	-.076	.000	-.076
	학업성취	.038	-.071	-.033	.218	.000	.218	-.103	.000	-.103
	학교폭력경험	.053	.032	.085	-.065	.000	-.065	.064	.000	.064
	친구자살경험	.041	-.007	.034	.040	.000	.040	.000	.000	.000
	자살사이트경험	.044	.000	.044	.000	.000	.000	.000	.000	.000
	유명인 자살영향	.207	.098	.305	-.151	.000	-.151	.217	.000	.217
	자살생각				-.164	.000	-.164	.339	.000	.339

부모폭력목격경험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062), 우울(.131)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폭력을 많이 목격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며, 우울의 정도가 높아져 간접적으로 자살생각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학대경험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219), 우울(.207)과 자아존중감(-.100)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경험의 경우 다른 요인들에 비해 우울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대경험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준의 우울증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하는 매개효과를 통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즉,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의 정도가 심해지며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므로 학대경험은 자살생각의 중요한 예측요인이 된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청소년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040), 우울(-.040)과 자아존중감(.143)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을 통한 매개효과가 우울보다 상대적으로 크을 알 수 있다.

주관적 학업성취도 또한 청소년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038), 우울(-.103)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자아존중감(.218)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학교폭력경험도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053), 우울(.064)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자아존중감(-.065)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학업성취도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을 통한 매개효과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교환경은 청소년에게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우울의 정도가 높아지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청소년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041), 자아존중감(.040)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이트 방문경험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044)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인의 자살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의 요인은 직접효과, 간접효과 모두 나타났다. 즉, 유명인의 자살에 대한 보도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207)을 주며, 또한 우울이 증가(.217)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므로(-.151) 자살생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명인의 자살 보도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은 다른 생태체계요인들의 영향력보다 자살생각에 대한 직접적 영향뿐 만 아니라 우울을 통한 간접적 영향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서 독립변인들이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양은 4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을 설명하는 양은 19.2%, 자아존중감은 13.7%이다.

따라서 위의 분석결과를 보면,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있어서도 중요한 매개변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우울이 더욱 큰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대경험과 우울, 유명인의 자살의 영향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가장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대경험이 높고, 유명인의 자살보도에 쉽게 영향을 받으며, 우울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실시에 있어 자살생각을 직접적으로 다루어주어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자신의 학업성

취가 낮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높으므로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통해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유명인의 자살보도에 쉽게 영향을 받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우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도 높으므로 우울의 감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자살 예방을 위한 개입프로그램에서는 자살생각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도 하지만 우울의 정도를 낮추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환경체계 수준의 요인인 학대경험과 학교환경체계 수준의 주관적 학업성취도, 대중매체환경체계 수준의 요인인 유명인의 자살 보도의 영향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증가에 대한 영향력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므로 특히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V. 논의 및 결론

청소년은 자신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해석결과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므로 청소년의 자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적·환경적 맥락의 이해가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의 자살 예방은 자살의 심각성을 경고하거나 행동자체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비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자살은 자살생각-자살의도-자살시도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현상이므로 먼저 가장 선행단계인 자살생각을 지니고 있는지의 유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련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생태체계이론과 자살생각에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가족환경체계수준의 요인으로는 부모폭력목격경험, 학대경험,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포함하였다. 학교환경체계수준의 요인들로는 주관적 학업성취도, 학교폭력경험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친구환경체계 수준의 요인들은 친구자살자의 여부이었으며, 그리고 대중매체환경체계 수준에서는 자살사이트 방문경험과 유명인 자살보도의 영향을 포함하였다. 이들 요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탐색하였으며, 매개변수로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매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차별적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분석

한 결과,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실업계고등학생이 인문계고등학생보다,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양친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부모 없는 청소년이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자살생각이 높다는 결과는 본 연구가 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Baldry & Winkel, 2003; Hallfors et al., 2004; Liu & Tein, 2005; Miotto et al., 2003; 윤성림, 1990; 전영주·이숙현, 2000; 하연희, 2001). 이는 남자청소년이 감정을 외적으로 드러내어 행동화하는 외현화하는 경향이 높은데 비해 여자청소년은 내재화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여자청소년에 있어서는 심리정서적 측면을 깊이있게 다루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은 자신의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며, 특히 중상류층과 하류층의 청소년이 자살생각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Andrews & Lewinsohn, 1992; Dubow et al., 1989; Roberts et al., 1997; Rubenstein et al., 1989; Mathur & Freeman, 2002). 즉, 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가족의 경제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나 걱정이 높아지며, 또래들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또한 부모가 생계를 위한 외부활동이 많아 자녀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소홀해지기 쉽고 자녀와 함께 시간이 적어지면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부모의 존재여부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양친가정 청소년의 자살생각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Kaltiala et al., 1999; Rey Gex et al., 1998; Eskin, 1995; Grossman et al., 1991; Manson et al., 1989; Reinherz et al., 1995)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의 정서적·경제적·심리적 지지와 지원은 청소년의 성장과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요소의 부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장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 관점에서 한부모가정이나 소년소녀가정 또는 시설보호 청소년의 자살을 포함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도시지역의 청소년보다 군지역의 청소년이,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이 높았는데, 이는 사회경제수준에 따른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소외감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여겨지며,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실업계고등학생이 인문계고등학생보다 자살생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실업계고등학생은 인문계고등학생에 비해 학업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비교적 다양한 진로 선택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회진출에서의 기회와 선택의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오는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형화된 개입보다는 청소년의 성, 학교유형, 경제수준, 가족구조에 따라 차별화된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생태체계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많은 선행연구 결과들의 검토를 통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매개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만들어 청소년의 자살생각 경로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중요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자살생각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울은 자살생각에 대한 총효과가 가장 높은 변인이므로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우울이 자살생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우울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다른 생태체계요인에 비해 유명인의 자살의 영향여부와 학대경험의 경우 자살생각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자살생각의 감소를 위한 직접적인 개입은 물론 자아존중감의 증가와 우울의 감소를 통한 자살생각 감소의 노력이 병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의 경우 자살생각의 직접적 영향이나 우울을 통한 간접적 영향보다 자아존중감의 감소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성적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 향상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는 가정환경과 대중매체의 영향, 학업성취도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부모 자녀관계 향상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프로그램, 또는 부부 치료 등의 실시를 통한 가족환경개선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청소년이 인터넷이나 TV,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접하는데 있어 세심한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업성취에 의한 청소년의 영향을 재확인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대 경험이나 우울, 자아존중감 등은 표준화점수를 이용하여 정기적 조사를 통해 자살의 고위험집단을 선별하여 접근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청소년 자살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또한 학교상담전문교사제나 학교사회 복지사업을 통하여 학생정신보건문제와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접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또한 일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포함한 전반적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주의와 함께 유명인 등의 자살보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촉발하지 않도록 대중매체의 주의깊은 보도태도와 학교차원의 위기개입 체계구축도 필요하며, 가족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 분석하고, 그러한 요인들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를 밝힘으로서 다양한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들 수 있으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생각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자살생각은 지극히 개인내적인 현상이므로 양적자료만을 통해 청소년의 자살현상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리라 생각한다. 실제 자살시도집단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하여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종합적인 요인들을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청소년 자살예방프로그램의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청소년의 자살생각, 생태체계요인, 매개효과, 자아존중감, 우울

참 고 문 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청소년백서 2005.
- 권자영(1991),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환(1999), "학생문제에 대한 학생·부모·교사의 인식 비교". 학교사회사업, 2.
- 김기환·전명희(2000),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9, 127-152.
- 김민강(2002),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제엽(2001),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연세사회복지연구, 6-7, 1-32.
- 김태건(2006), "아내폭력 노출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향초(1993), "청소년자살의 심리사회적 요인분석 및 예방 대책 연구", *청소년학연구*, 1(1).
- 김훈태(2003), "청소년의 연예인 이상화의 원인 행동유형 및 수준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동아일보, 2001.3.21., 전자신문.
- 류영제(2002), "청소년의 대중스타 이상화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병근·이길홍·이재광·김현수·박두병·나철·박광식(1986),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자살양상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한국의과학*, 18(1), 20-29.
- 박광배·신민섭(1990), "고등학생의 대학입시목표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임상*, 9(1), 20-32.
- 박광배·신민섭(1991),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임상*, 10(1), 298-314.
- 박광배·오경자·신민섭(1991), "우울증과 충동성이 청소년들의 자살 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임상*, 10(1), 286-297.
- 송인섭(1994), 통계학의 이해. 학지사.
- 신민섭(1992), 자살기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혜섭(2000), "아내구타가정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6, 67-85.
- 신현중(1998), "멀티미디어의 폭력성, 선정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연구 : 오락용 씨디롬 타이틀, 인터넷과 그 검열제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병화(2004). 다변량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학지사.
- 윤성립(1990), 자살생각경험을 지닌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진(1993), "청소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방향", *청소년학연구*, 1(1), 17-26.
- 이민규·이영호·박세현·손창호·정영조·홍성국·이병관·장필립·윤애리(1995), "한국판 Beck 우울 척도의 표준화 연구 I : 신뢰도 및 요인분석", *정신병리학*, 4(1), 77-95.
- 이은숙(2002),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구조모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한나(2006), "사회경제적 수준이 청소년의 자살 사고(思考)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철(1995), 자살생각과 습은 비행의 공통기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섭(2000), "아내구타 가정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6, 67-85
- 장덕희(2004), "가정폭력 경험 특성이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1(3), 65-91.
- 장문태(2002), "자살태도와 자살관련 사건의 뉴스선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희숙(2002), "부모의 폭력 및 지지행동이 이성교제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0, 131 -155.
- 전영주·이숙현(2000), "청소년의 자살 구상과 관련 변인분석", *청소년학연구*, 7(1), 221-246
- 전영주(2001), "우울증을 매개로 한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관한 가족 및 학교환경의 경로분석모델", *대한가정학회지*, 39(1), 151-167.
- 정숙경(1991). "청소년 생활 만족도와 가치관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정영순(2001), "한국 한국고등학생들의 부모형태별 자살생각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4. 364-374
- 조미숙(1999), "가정폭력의 목격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 295-326.
- 조진희(1998), "여고생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지홍(2003), "자살사이트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CLIS Monthly*.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청소년보호위원회(2003), "청소년자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제1회 청소년 자살예방세미나.
- 최우신(1999), "청소년의 연예인 이상화 심리 및 가족환경",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6), 2005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
- 하연희(2001), 중학생의 자살생각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2003),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홍나미(1998),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영수(2004),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생활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자원의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영수·전선영(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 125-149.
- 홍진아(200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도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derson, R. N., & Smith, B. L.(2003), "Deaths: Leading causes for 2001", *National Statistics Report*, 52(9), 1-86.
- Andrews, J.A., & Lewinsohn, P.M.(1992), "Suicidal attempts among older adolescents : Prevalence and co-occurrence with Psychiatric disorder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 31, 655-662.
- Amato, P.R & Keith, B.(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1).pp.26-46
- Ayyash-Abdo, H.(2002), "Adolescent suicide: An Ecological Approach", *Psychology in the Schools*, 39(4), 459-475.
- Baldry, A. D., & Winkel, F. W.(2003), "Direct and vicarious victimization at school and at home as risk factors suicidal cognition among Itali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6, 703-716.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1975), "Hopelessness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34, 1146-1149.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 Psychology*. 42.
- Belsky, J.(1980). "Child maltreatment: An ecological integration". *American Psychologist*, 35, 320-335.
- Bensley, L. S., Van Eenwyk, J., Spieker, S. J. & Schoder, M. N.,(1999), "Self-reported abuse history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 I. Antisocial and suicidal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4, 163-172.
- Berman, A. L.(1988), "Fictional depiction of suicidal in television films and imitation effec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 982-986.
- Blum, R. W., Harmon, B., Harris, L., Bergeisen, L. & Resnick, M. D., (1992), "American Indian-Alaska Native youth health". *The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7, 1637-1644.
- Bollen, K. A. & Phillips, D. P.(1982), "Imitative suicides : A national Study of the effect of television news st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802-809.
- Bonner, R., & Rich, A.(1987), "Toward a predictive model suicidal ideation behavior".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7, 50-63.
- Borowsky, I. W., Ireland, M. & Resnick, M. D. (2001). Adolescent Suicide Attempt: Risk and Protectors. *Pediatrics*, 107(3), 485-493.
- Brent, D. A., Baugher, M., Bridge, J., Chen, T. & Chiappetta, L.(1999). "Age-and sex-related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icid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 1497-1516.
- Brent, D. A., Perper, J. A., Goldstein, C., Kolko, D., Alan, M., Allman, C., & Zelenak, J.(1989),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icide : A comparison of adolescent suicide victims with suicidal inpati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5, 581-588.
- Brent, D. A., Perper, J. A., Moritz, G., Allman, C. J. Friend, A., Roth, C. Schweers, J. Balach, L. & Baugher, M.(1993), "Psychiatric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icide : A case control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 521-529.
- Buddeberg, C., Buddeberg, F. B., Gnamm, G., Schmid, J. & Christen, S.,(1996). "Suicidal in Swiss students : An 18-month follow-up survey". *Crisis*, 17, 78-86.
- Calson, G. A., & Cantwell, D. P.(1982), "Suicide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
- Cummings, E.M., Iannotti, R.J. & Zahn-Waxler, C.(1985), "Influence of conflict between adults on the emotions and aggression of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95-507.
- Dubow, E. F., Kausch, D. F., Blum, M. C., Reed, J., & Bush, E.(1989),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in a community sample of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58-166.
- Eskin, M.(1995), "Suicidal as related to social support and assertiveness among Swedish and Turkish high school student : A cross-cultural investig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 158-172.
- Evans, E., Hawton, K., & Rodham, K.(2004),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phenomena in adolescents : A systematic review of population-based studi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 957-979.
- Fergusson, D. M., Woodward, L. J., & Horwood, L. J.(2000), "Risk factors and life processes associated with the onset of suicidal Behaviour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Psychological Medicine*, 30, 23-39.
- Fisher, J., & Corcoran, K.(1994),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The Free Press.
- Germain, C. B., & Gitterman, A.(1987), "Ecosystem Perspective", In *Encyclopedis of Social Work*. Vol. 1, 18th rd., edited by Minahan. Silver Spring, Md.: NASW, 488-499.
- Gould, M. S., Fisher, P, Parides, M., Flory, M. & Shaffer, D.(1996), "Psychosocial risk factors of child and adolescent completed suicid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 1155-1162.

- Grilo, C. M., Sanislow, C. A., Fehon, D. C., Lipschitz, D. S., Martino, S. & McGlashan, T.H.(1999), "Correlates of Suicide Risk in Adolescent Inpatients Who Report a History of Childhood Abuse". *Comprehensive Psychiatry*, 40(6), 422-428.
- Grossman, D. C., Milligan, B. C., & Deyo, R. A.(1991), "Risk factors for suicide attempts among Navajo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1, 870-874.
- Hallfors, D. D., Waller, M. W., Ford, C. A., Halpern, C. T., Brodish, P.H., & Iritani, B.(2004),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e Risk : Association with Sex and Drug Behavior". *Am J Med*, 27(3), 224-230.
- Hawton, K., Kingsbury, S., Steinhardt, K., James, A. & Fagg, J., (1999), "Repetition of deliberate self-harm by adolescents : the role of psychological factors". *Journal of Adolescence*, 22, 369-378.
- Jaffe, P. G., Wilson, S. K. & Wolfe, D. A.(1996), "Promoting change in attitudes and understanding of conflict among child witnesses of family violence".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8, 356-380.
- Jonas, K.(1992), "Modeling and suicide : A test of the Werther effect".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295-306.
- Kaltiala, H. R., Rimpela, M., Mattunen, M., Rimpela, A., & Rantatanen, P.(1999). "Bullying,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Finnish adolescents: School survey", *British Medical Journal*, 319, 348-351.
- Kandel, D. B., Raveis, V. H. & Davies, M.(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289-309.
- Kazdin, A. E., Moser, J., Colbus, D., & Bell, R.(1985), "Depressive symptoms among physically abused and psychiatrically disturb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298-307.
- Kienhorst, C. W. M., Ed Wilde, E. J., Van Den Bout, J., Diekstra, R. F. W., & Wolters, W. H. G.(1990), "Characteristics of suicide attempters in a population-based sample of Dutch adolescent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6, 243-248.
- Kinkel, R. J., Baley, C. W. & Josef, N. C.(1989), "Correlates of adolescent suicide attempts : Alienation, drugs and social background". *Journal of Alcohol and Drug Education*, 34, 85-96.
- Ladame, E., & Jeanneret, O. (1982), "Suicide in adolescence : Some comments on epidemiology and prevention". *Journal of Adolescence*, 5, 355-366.
- Liu, X., & Tein, J.(2005), "Life events, psychopathology, and suicidal behavior in Chinese adolesc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86(2/3), 195-203.
- Lynch, M.& Cicchetti, D.(1998), "An ecological transactional analysis of children and contexts, *Development Psychopathology*, 10, 235-257.
- Manson, S. M., Beals, J., Dick, R. W., & Duclos, C.(1989), "Risk factors for suicide among Indian adolescents at a boarding school". *Public Health Report*, 104, 609-614.
- Martin, G.(1996), "The influence of television suicide in a normal adolescent population".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2, 103-117.
- Martin, G., Rozanes, P., Pearce, C., & Allison, S.(1995), "Adolescent suicide, depression and family dysfunctio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92, 336-344.
- Mathur, V. K., & Freeman, D. G. (2002), "A theoretical model of adolescent suicide and some evidence from US data", *Health Economics*, 11, 695-708.
- Mazza, J. J.(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atology and suicidal in school-based adolescent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30, 91-103.
- McGee, R., & Williams, S.(2000), "Does low self-esteem predict health compromising behavior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3(5), 569-582.
- Miotto, P., Coppi, M. D., Frezza, M., Petretto, D., Masala, C., & Preti, A.(2003), "Suicidal ideation and aggressiveness in school-aged youths". *Psychiatry Research*, 120, 247-255.
- MMWR(2004),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53(22).
- Osofsky, J. D.(1988), *Children as invisible victims of domestic and community violence In Children Exposed to Marital Violence*. edited by Holden G.W., Gefferner R. & Jouriles E.N.
- Peled E.(1997), "Intervention with children of Battered woman : A Review of Current Literatu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9(4), 277-299.
- Perkins, D. F., & Hartless, G.(2002), "An Ecological Risk-Factor Examination of Suicide Ideation Behavior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s Research*, 17(1), 3-27.
- Pfeffer, C. D., Klerman, G. L., Hurt, S. W., Lesser, M., Peskin, J. R. & Siefker, C. A.(1991), "Suicidal children grow up: Demographic and clinical risk

- factors for adolescent suicide attemp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 609-616.
- Pfeffer, C. R.(1988),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youth suicide : A clinical respecive". *Psychiatric Annals*, 18, 861-873.
- Pfeffer, C. R.(2001), "Diagnosi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 Unmet Needs for Suicide Prevention". *Biological Psychiatry*, 49(12), 1055-1061.
- Phillips, D. & Carstensen, L. L.(1986), "Clustering of teenage suicide after television news stories about suicid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15, 685-689.
- Pilowsky, D. J., Wu, L., & Anthoy, J. C.(1999), "Panic attacks and suicide attempts in mid-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 1545-1549.
- Reinherz, H. Z., Giaconia, R. M., Silverman, A. B., Friedman, A., Pakiz, B., & Frost, A. K.(1995), "Early psychosocial risks for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5), 599-611.
- Rey Gex, C. R., Narring, F., Ferron, C., & Michaud, P. A.(1998), "Suicide attempts among adolescents in switzerland: prevalence, associated factors and comorbidity".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98, 28-33.
- Reynolds, W. M.(198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igby, K. & Slee, P.(1999),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 school children, involvement in bully-Victim problem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29, 119-130.
- Roberts, R. E, Chen, Y. R., & Roberts, C. R.(1997), "Ethnocultural differences in prevalence of adolescent suicidal behavior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27, 208-217.
- Rubenstein, J. L., Heeren, T., Housman, D, Rubin, C., & Stechler, G., (1989), "Suicidal in 'normal' adolescents :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59-71.
- Shaffer, D., Gould, M. A., Fisher, P., Trautman, P., Moreau, D., Kleinman, M., & Flory, M. (1996), "Psychiatric diagnosis in child and adolescents suicid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 339-348.
- Simons, R. L., & Murphy, P. I.(1985), "Sex differences in the causes of adolescent suicide ide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5), 423-434.
- Smith, K., & Crowford, S.(1986), "Suicidal behavior among "normal" high school stud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6, 313-325.
- Stack, S. A (1987), "Celebrities and suicide : A taxonomy and analysis, 1948-1983".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401-412.
- Stewart, S. M., Lam, T. H., Betson, C., & Chung, S. F.(1999), "Suicide ide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depressed mood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in Hong Kong". *Suicide & Life-Threatenin g Behavior*, 29, 227-240.
- Sternburg, K. J., Lamb, M. E.,Greenbaum, C., Cicchetti,D.,Dawud,S., Cortes, R. M., Trispin, O., & Lorey, F.(1993),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depression". *DevelopmentPsychology*, 29, 44-52.
- Straus, M. A.(1995). *Manual for the Conflict Tactics Scales*. Durham, NH : Family Research Laboratory, University of New Hampshire.
- Straus, M. A.(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 *Child Abuse & Neglect*, 22, 249-270.
- Swanson, J. W., Linskey, A. O., Quintero, S. R., Pumariega, A. J., & Holzer, C. E.(1992), "A binational school survey of depressive symptoms, drug use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1, 669-678.
- Wagman Borowsky, I., Resnick, M. D., Ireland, M. & Blum, R. W., (1999), "Suicide attempts among 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youth".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3, 573-580.
- Wasserman, I. M.(1984), "Imitation and suicide : A re-examination of the Werther effe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427-436.
- Watt, T. T. & Sharp, S. F.(2001), "Gender differences in strains associated with suicid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333-348.
- Wyndham, A.(1998), "Children and Domestic violence : The Need for Supervised is Ordered/Desired". *Australian Social Work*. 51(3), 41-48
- Yuen, N, Andrade, N., Nahulu, L., Makini, G., McDermott,

- J. F., & Danko, G.(1996), "The rate and characteristics of suicide attempters in the native Hwaiian adolescent population".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26, 27-36.
- Zubrick, S. R., Silburn, S. R., Garton, A., Burton, P., Dalby, R., & Carlton, J.(1995), *Western Australian child health survey : Developing health and well-being in the nineties*, Perth, Western Australia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nd the Institute for Child Health Research.
- (2007. 03. 07 접수; 2007. 05. 29 채택)